

텍스트의 공정성 판단 기준에 관한 문법 교육적 탐색 — 『언어와 매체』 교과서를 중심으로

최선희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제1저자)

김정은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강사(교신저자)

- I. 서론
- II. 공정성에 관한 이론적 배경
- III. 『언어와 매체』에서의 ‘공정성’ 관련 교육 내용에 관한 고찰
- IV. 텍스트의 공정성 판단 기준의 구체화 및 교육 방향 제안
- V. 결론

I. 서론

‘어떠한 글이 공정한가?’에 대한 물음은 일상생활에서도 어렵지 않게 거론되고는 한다.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하물며 개인이 게시하는 SNS의 글까지, 종류를 막론하고 필자가 모종의 입장이나 태도를 취하는 글을 만나면 ‘그 글이 공정한가?’라는 물음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된다. 이는 곧 ‘공정성’ 개념이 어렵거나 일상과 괴리된 개념이 아님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어교육의 장에서는 ‘공정성’의 속성이나 개념에 관해 정치하게 다루어진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이관희, 2021; 조진수·박재현·이관희·김지연, 2019 등).

그간 ‘공정성’은 비판적 언어 인식을 교육 내용화하는 과정에서 텍스트의 사회문화적 접근을 꾀하기 위한 하나의 입각점으로 인식되어 왔다. 문제는, ‘공정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로 구성된 개념인지에 대한 천착 없이 교과서에 해당 용어가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최근에서야 ‘공정성’ 개념을 국어 교육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일련의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본 연구는 언어로 실천된 ‘텍스트’의 차원에서 공정성이 어떻게 실현되고

판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상세화하여 문법 교육 내용을 설계하는 방안을 보이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구체화하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공정성 개념과 구인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문법 교육적 관점에서 ‘공정성’의 위상을 확인한다.
2. 교육과정 및 교과서 층위에서 공정성 개념이 다루어지는 양상을 『언어와 매체』 교과서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현 실태의 한계와 앞으로의 교육적 가능성을 확인한다.
3. 1과 2를 바탕으로 공정성의 구인 간 관계 및 공정성 판단 기준을 정립하여 교육 내용화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II. 공정성에 관한 이론적 배경

학술적, 교육적 차원에서 특정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은 논의의 출발점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공정성’은 공정성 그 자체 혹은 한두 개의 하위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는 단일 개념이 아니라 공정성을 둘러싼 다양한 개념 및 구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되어야 하는 군집 개념(cluster concepts)이라는 점에서 교육 내용화 이전에 공정성 개념을 명료화하는 일은 필수적이다.

요컨대 공정성은 정치 철학, 사회학, 언론학, 교육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언급되었다. 이 중 공정성이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대표적인 분야로 정치 철학과 언론학을 꼽을 수 있다. 정치 철학적 의미에 뿌리를 두고 있는 공정성 개념은 언론에서 실천 규범이자 지향해야 할 가치(김현강, 2016: 58)로 인식

되어 왔는데, 이러한 공정성은 ‘객관성’에서 유래한 것으로 본다.^{1) 2)} 그간 언론학에서 공정성의 하위 개념으로 논의된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³⁾

(1) 언론학에서 공정성의 주요 하위 개념

- 진실성, 적절성, 균형성, 중립성(Rosengreen, 1980; Westerstahl, 1983)
- 진실성, 적절성, 균형성, 중립성, 다양성, 독립성(이민웅·이창근·김광수, 1993)
- 사실성, 윤리성, 이데올로기(강명구, 1994)
- 진실성, 적절성, 양적 균형성, 다양성, 질적 중립성, 종합성/심층성(강태영·권영설, 2000)
- 형식적 공정성, 내용적 공정성(이창현, 2002)
- 균형성, 사실성, 다양성, 불편부당성(배선영·이봉규·이상우, 2010)

이처럼 공정성은 한 분야 내에서도 다양하게 정의될 만큼 여러 요소를 내포한 복합적인 개념이다. 특히 공정성을 구성하는 하위 개념 또한 가치 판단이 필요하여 학자마다 해석이 다르다(김선량, 2020: 148). 이 같은 문제 아래 권형돈·하주용·배진아(2015: 33)에서는 공정성의 하위 개념을 분석하여 대표 개념을 상정한 후 공정성의 구인을 논의하였다. 이에 해당 논의를 바탕으로 이후의 연구들에서 논의된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1) 객관성에 기반한 공정성은 19세기 중반 이후 미국 언론의 신문 시장이 유가치 체제로 상업적 재편을 거치면서 형성된 믿음이라고 본다. 다수의 대중을 독자로 끌어들이고자 당파성을 벗어난 상태를 균형적이며 공정한 것으로 보게 된 것이다(김현강, 2016: 58).
 - 2) Westerstahl(1983)에서는 객관성을 사실성과 불편부당성으로 양분하고, 사실성을 진실성과 적절성, 불편부당성을 균형성과 중립성으로 세분화한 바 있다. 이러한 논의는 공정성의 개념화에 큰 영향을 끼쳤으나 기본적으로 객관성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만으로 공정성 개념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조진수 외, 2019: 103).
 - 3) 본고에서는 공정성의 하위 개념으로 언급된 모든 개념을 상세히 논하는 것은 본고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선행 연구들에서 공정성의 하위 개념으로 공유되는 공통적인 지점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표 1〉 공정성의 구인(권형돈 외, 2015: 33 참고)

유사, 하위 개념		대표 개념
내연적 공정성, 내용적 공정성, 담론적 공정성		내용 공정성
외연적 공정성, 형식적 공정성		형식 공정성
적절성, 적절한 정보, 윤리성		적절성
종합성, 전체성, 심층성		종합성
중립성, 불편부당성, 질적 중립성, 주관성, 질적 균등성	→	중립성
형평, 동등, 양적 균형성, 양적 균등성		균형성
진실성, 사실성, 사실 타당성, 정확성, 객관성		사실성
다양성, 다양한 집단의 견해 반영, 독립성		다양성
당파성, 정파성		당파성
이데올로기, 이념		이념성
선전, 주창성		주창성

이와 관련하여 김선량(2020)에서는 언론학 분야에서 제시하는 공정성의 하위 개념을 빈도순으로 정리한 바 있어 주목된다. 연구 결과 ‘사실성’, ‘균형성’, ‘중립성’, ‘다양성’, ‘적절성’ 순으로 나타났으며,⁴⁾ 이들 하위 개념은 언론학뿐만 아니라 사회학, 응용 언어학 등 다수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다(김현강, 2016; 문종대·안차수·진현승·안순태, 2007; 정동우·황용석, 2012 등)는 점에서 본고에서 역시 이와 같은 하위 개념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하였다. 개념별 의미를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 김선량(2020)에서는 48개의 하위 개념을 유사성을 기준으로 비슷한 개념끼리 묶어 총 34개의 하위 개념의 빈도수를 분석하였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진실성’과 ‘사실성’을 동일한 것으로 보고 두 개념어를 혼용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이를 ‘사실성’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2) ‘사실성’, ‘균형성’, ‘중립성’, ‘다양성’, ‘적절성’의 의미

- 사실성: 진실성의 입증이 되지 않은 경우에 단정적인 보도 지양.
- 균형성: 다양성의 보장이 전제된 상태에서의 양적인 균형을 확보.
- 중립성: 균형성의 보장이 전제된 상태에서 주관성 배제 및 질적 균등성 확보.
- 다양성: 사실 보도를 전제로 관련된 모든 영역의 견해와 관점을 포함.
- 적절성: 주제와 밀접한 내용의 보도 및 지나친 개인적 보도 지양

그러나 <표 1>에서처럼 하위 개념 간 모호성이 존재하고, 각각이 다변적인 층위를 지니고 있어 문제적이다. 특히 국어 교육에 집중하여 보면, 그간 공정성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부재한 채 공정성 판단에 대한 교육 내용이 다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더해진다.

구체적으로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공정성’은 ‘타당성’, ‘신뢰성’과 함께 비판적 이해의 기준으로 교육 내용화되어 왔다. 그러나 국어 교육에서 ‘공정성’에 천착한 논의는 조진수 외(2019)를 제외하고는 발견할 수 없다. 이는 공정성이 추상적이면서도 복합적이고 다의적이기에 단일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는 데서 연유한다.

(3) [12독서03-06] (중략) 매체 자료와 매체의 소통 양상을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 등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에도 중점을 둔다(교육부, 2015).

(3)은 공정성을 명시하고 있는 성취기준 중 하나로 ‘공정성’은 국어과의 다양한 영역에서 ‘신뢰성’, ‘타당성’과 한데 언급되어 왔다. 그러나 유관 개념들과 명료한 변별 없이 포괄적이고 범박한 수준에서 교육 내용화되거나, 세 개념 중 한두 가지만 언급되는 경우도 있어 공정성, 타당성, 신뢰성 각각이 대등한 관계인지, 종속적 관계인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지니는지가 불분명하다. 이러한 문제는 다음 『언어와 매체』 교과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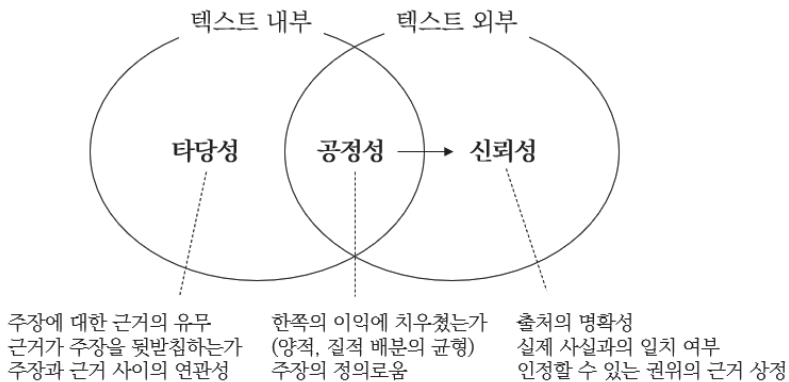
(4) 정보 전달 매체 자료의 수용과 생산: 정보를 전달할 대상과 목적을 고려하여 신뢰성, 공정성 있게 생산함.

(5) 매체 자료의 비판적 수용 방법

- 공정성: 자료에 담긴 관점과 가치가 공정한 것인가?
- 타당성: 주장과 근거가 타당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 신뢰성: 제시된 정보나 자료는 신뢰할 만한 것인가?

‘공정성’, ‘타당성’, ‘신뢰성’ 간 관계와 관련하여 신문 이용자의 만족도를 공정성과 신뢰성을 중심으로 논의한 류춘렬(2018)을 주목할 수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신문 신뢰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공정성, 완벽성, 정보의 깊이, 독창성 등으로 나타났다(류춘렬, 2018: 83). 즉, 수용자의 입장에서 신뢰성은 해당 자료나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낮은 공정성은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관계인 것이다. 방송 심의의 신뢰성 제고 방안으로 공정성 기준의 구체화를 제안한 신상민(2015)의 연구 또한 유사한 맥락에서 공정성과 신뢰성 간의 관계를 추론할 수 있다.

물론 텍스트의 수용자나 생산자, 텍스트 종류에 따라 개념 간 영향 관계의 정도성은 다를 수 있다. 그럼에도 논의를 종합해 보면 ‘타당성’은 주장과 근거에 대한 연관성 및 내용적 타당성에 초점이, ‘공정성’은 주장의 정의로움과 이익의 양적·질적 배분의 균형의 문제에 방점이, ‘신뢰성’은 공정성의 확보를 전제로 한 출처의 명확성과 실제와의 일치에 초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정성, 신뢰성, 타당성을 텍스트의 내적 요소와 외적 요소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관계성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공정성’, ‘타당성’, ‘신뢰성’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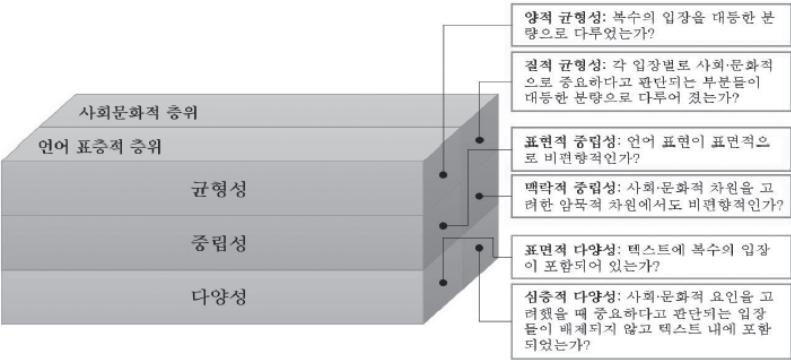
이에 본고는 〈그림 1〉을 바탕으로 텍스트 내부와 외부에 모두 관여하는 ‘공정성’을 텍스트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에 주목한다. 이 과정에서 앞선 (2)에서 논의한 공정성의 하위 개념을 한데 고려한다. 논의를 위해 ‘방송 언어’ 장르의 공정성을 논의한 조진수 외(2019)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논의에서는 역대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공정성’이 수용되어 온 양상을 고찰하여 다음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6)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다루어 온 공정성 개념: ‘공평, 형평, 균형’, ‘정의, 약자 배려’의 관점에서 공정성 개념을 사용함.

(7) 문제점: 유사한 뜻의 용어를 중첩하여 사용하며 공정성 개념의 제한된 부분만을 다루다 보니 공정성의 개념과 구성 요인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움.

(6), (7)에서 확인할 수 있듯 국어 교육에서 공정성은 비판, 판단, 평가 등의 기준으로 상정되어 왔으나 ‘신뢰성’, ‘타당성’과의 관계적 문제뿐만 아니라 공평성, 형평성, 균형성 등과의 경계 또한 명확하지 않다. 특히 공정성은 비판적 이해를 다루는 화법, 독서 분야에 집중(조진수 외, 2019: 96)되어

있었는데, 개념에 대한 깊은 천착이 부재하다 보니 공정성의 의미를 추정하여 교육 내용을 구성해 왔다는 문제가 자리한다.⁵⁾ 또한 그간 국어 교육에서 제시된 공정성은 교과 영역 특수성을 고려했다고 볼 수 없고, 공정성의 특정 부문이 상황에 따라 달리 부각되어 규정되고 있다(조진수 외, 2019: 116)는 점에서 해결을 필요로 한다. 이에 조진수 외(2019)에서는 방송 언어라는 특정 장르에서의 공정성 개념을 다음과 같이 국어 교육적 시선에서 수립하였다.



〈그림 2〉 ‘공정성’ 개념의 구성 요소(조진수 외, 2019: 121)

〈그림 2〉와 같이 해당 연구에서는 공정성의 구성 요소로 ‘균형성’, ‘중립성’, ‘다양성’을 상정하고, 균형성을 ‘양적 균형성’, ‘질적 균형성’으로, 중립성을 ‘표면적 중립성’, ‘맥락적 중립성’으로, 다양성을 ‘표면적 다양성’, ‘심층적 다양성’으로 세분화하였다. 이는 언론학에서 제시하는 하위 개념과 다소 차이가 있어 공정성이 사용역에 따라 다변적인 층위의 의미로 소용될 수 있음

5) 문법 교육에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문법 교육에서 공정성은 ‘정치적으로 올바른 언어’, ‘PC 운동’ 등의 국면에서 실제 텍스트와 무관하게 차별적, 비객관적, 불평등 언어 표현이라는 어휘 층위로 논의가 제한(이관희, 2021: 208)되어 왔다.

을 보여 준다. 영역 특수성을 고려하면 당연한 현상일지라도 공정성 개념이 내포하는 범위의 다양성은 결국 이관희(2021)에서 지적한 바 있는 ‘실마리’가 없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교육 내용이자 텍스트의 실체성을 떨어뜨리는 문제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문법 교육에서의 공정성 논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본고는 국어 교육적 연구의 성격을 따므로 조진수 외(2019)를 논의를 근간에 둔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방송 언어’의 공정성 개념에 초점을 두고 있어 공정성 개념을 특정 분야의 언어에 제한하지 않는 본고와 다소 차이가 있다. 공정성이 주로 기사문이나 보도문과 같은 언론 텍스트에 관해 분석되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외 텍스트에서 공정성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조진수 외(2019: 95)에서도 지적하였듯 공정성의 개념이 명료하게 정립되기 위해서는 공정성의 보편적 특성뿐만 아니라 장르 특수적 성격까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고는 이 지점에 주목한다.

특히 국어 교육에서 공정성 판단은 텍스트를 통로로 이루어지므로 텍스트의 종류 및 성격에 따라 부각되어야 할 공정성 판단의 단계와 강조점을 밝힐 필요가 있다. 공정성 개념은 적용하고자 하는 분야, 목적에 따라 하위 개념 및 구인이 달리 확정되는바, 텍스트 내에서도 성격에 따라 공정성의 어떤 하위 개념을 부각시켜야 하는지, 어떠한 단계로 공정성을 판단해야 하는지, 텍스트에 따라 공정성을 판단해야 하는 정도성은 어떠해야 하는지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물론 공정성의 개념 영역을 확정하여 텍스트의 공정성 판단 기준을 상세화하는 것이 까다롭다는 필연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특히 공정성은 단순히 옳고 그름의 문제로 치환될 수 없고, 판단 과정에 정도의 판단이 관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공정성에 대한 공백 상태의 교육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 텍스트 차원에서 공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과정을 설계하고,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교육 내용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다.

III. 『언어와 매체』에서의 ‘공정성’ 관련 교육 내용에 관한 고찰

1. 교육과정 차원에서의 ‘공정성’ 관련 기술 검토

‘공정성’ 판단 기준 수립과 교육 내용화에 앞서 2015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2015)을 중심으로 ‘공정성’이 교육 내용으로 다루어지는 양상을 검토하기로 한다. 전술하였듯 문법 교육에서 ‘공정성’ 교육은 정확히 말해 공정성 ‘개념’ 그 자체라기보다는 ‘텍스트에 실현된 언어적 표현’이 공정한지에 대해 언어적으로 탐구하는 데 있다. 따라서 공정성 관련 교육 내용의 구현태를 면밀히 살피는 것은 국어 교육에 필요한 공정성 판단 구인을 마련하고 이를 텍스트를 통해 판단해 보는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작업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검색어를 ‘공정’으로 설정하여 ‘공정성’이 명시적으로 언급된 성취기준을 다음과 같이 추출하였다.

(8) ‘공정성’이 명시적으로 언급된 성취기준

[9국01-05] 토론에서 타당한 근거를 들어 논박한다.

(중략) 논리적으로 반박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주장과 근거의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 등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논리적 허점 및 오류에 대해 근거를 들어 말하는 것이다.

[12화작02-03] 상대측 입론과 반론의 논리적 타당성에 대해 반대 신문하며 토론한다.

(중략) 상대측 논증의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질의 응답으로 반대 신문 단계를 운영하면…….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

(중략) 수집한 논거의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주제, 목적, 독자

를 고려하여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도록 한다.

[12독서03-06] 매체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글의 수용과 생산 과정을 이해하고 다양한 매체 자료를 주체적이고 비판적으로 읽는다.

(중략) 아울러, **매체 자료와 매체의 소통 양상을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 등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에도 중점을 둔다.

위와 같이 화법과 작문, 독서에서만 ‘공정성’과 관련한 성취기준을 살펴볼 수 있는데, 주로 ‘토론’, ‘논증적 글쓰기’, ‘비판적 읽기’에서 논증 방식의 평가 및 판단 기준 중 하나로 ‘공정성’이 사용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12독서03-06]은 매체와 독서의 융합을 꾀하는 내용으로 언어와 매체의 성취기준과 관련하여 다룰 수 있는 내용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어떤 장르적 특성을 띤 매체 자료를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 등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이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고 있어 문제적이다.

한편, 공정성은 대부분 ‘텍스트’를 통로로 언급되며, 주로 ‘기사문’ 등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이때 ‘기사문’은 문법 영역에서 언어 형식과 장르의 관계성을 다루는 자료로서 중요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정성’ 역시 문법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다룰 만한 소지는 충분하다. 이에 본고는 언어와 매체 교과와 성취기준 중 ‘공정성’을 교육 내용으로서 다룰 수 있을 만한 성취기준을 살피고자 하였다. 특히 ‘공정성’ 구인을 상세화하고 ‘타당성’, ‘신뢰성’과의 변별점을 명료화한다면 다음의 성취기준을 통해 문법 교육 내용으로서 ‘공정성’을 다룰 가능성을 갖게 된다.

(9) 언어와 매체 교과 중 ‘공정성’ 교육 관련 성취기준

[12언매02-10] 다양한 갈래에 따른 국어 자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국어 자료를 생산한다.⁶⁾

6) 이 성취기준에 대한 교육의 개선 방향은 최경봉·김윤신·이동석·주세형(2017)에서 논의되고 있다. 최경봉 외(2017: 44)에서는 해당 성취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갈래’를 제

(중략) 친교 및 정서 표현, 정보 전달, 설득 등 목적 층위와 기사문, 보도문, 공고문, 광고문 등 구체적 갈래 층위에서 국어 자료의 언어적 특성의 차이에 주목하도록 한다…….

[12언매03-02]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고려하여 매체 자료를 수용한다.

[12언매02-10]는 텍스트를 사회 문화적 실천 행위로서 바라보고 텍스트에 동원되는 문법 요소들이 모종의 의미 기능을 수행하며, 그러한 언어적 특성을 포착함으로써 텍스트의 장르성을 이해하는 활동과 관련 있는 성취기준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기사문에 사용되는 특정한 언어 형식을 단순히 통사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필자의 의도나 기사문이라는 장르적 특성을 고려하여 선호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필자가 특정한 텍스트를 통해 자신의 ‘공정한 태도’를 강조하여 보여 주고자 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이때 텍스트 구조나 어휘 문법적 형태에 대한 선택의 인식적 틀을 마련하는 데에 ‘공정성’이 관여한다고 본다면 위의 성취기준은 ‘공정성’을 구성하는 구인과 텍스트의 장르적 특성, ‘공정한 태도를 드러내기 위해 동원되는 언어 형식의 자원 목록’을 종합적으로 통찰할 수 있는 활동을 가능케 한다.

그러나 현재 [12언매02-10]이 실제 교과서로 구현되는 차원에서는 여전히 현대 사회에서 자주 사용되는 텍스트 유형의 언어적 경향성을 파악하는 정도로만 머물러 있어 한계를 보인다. 따라서 [12언매02-10]이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성취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12언매03-02]와의 통합이 필수적인데, 이때 개방해 놓은 ‘매체 자료’에서 ‘공정성’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필자

시하는 논리를 명확히 하고, 제시할 갈래를 타당하게 선정한 후, 해당 갈래의 특징을 보여주는 문법 지식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갈래 개념은 언어 형식이 파편화되어 제시되지 않고 규칙의 목록으로 남지 않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제안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후 교과서 분석을 통해 기술하겠지만 언어 형식을 유의미하게 가공하기 위해 제공된 ‘갈래’마저도 파편화되어 나열되고 있다.

의 ‘관점’이 텍스트의 장르적 특성에 따라 어떤 ‘언어 형식’을 통해 드러나는지, 그러한 차별점이 ‘공정성’의 구인들 중 어떠한 요소들의 작동과 관계되는지 살펴보는 활동을 구성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언어와 매체』 교과서에서 다루어지는 ‘공정성’ 관련 교육 내용에 대한 검토

본고에서 주목하는 언어와 매체 내의 ‘공정성’ 관련 성취기준들은 이른바 ‘언어적 요인’에 근거한 공정성 탐구(이관희, 2021: 217)를 모색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⁷⁾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질 때마다 다른 영역과의 기계적 결합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문법 교육 내용을 매체 및 독서 교과와 실질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언어와 매체』 교과서에 구현된 양상은 아직까지 완전한 통합을 이루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언어적 자원’에 근거하여 ‘공정성’을 탐구해 보는 활동이나 교육 내용은 전무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양상을 크게 두 가지로 판단한바, 첫째, ‘공정성’ 개념과 구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둘째, 그러다 보니 ‘공정성’을 비롯한 텍스트의 특성 및 장르성과 언어 형식을 관련지어 보는 교육 내용이 전혀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언어와 매체』 5종을 대상으로 앞서 언급한 성취기준을 다루고 있는 단원을 중심으로 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⁸⁾ 먼저 ‘공정성’

7) ‘언어적 요인’에 근거하여 추상적 개념을 탐구하고 추론해 보는 경험은 언어를 재료이자 탐구의 대상으로 삼는 국어과, 나아가 문법 교육 고유의 정체성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앞서 강조하기도 했지만, 국어 교육에서 ‘공정성’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교육 내용으로 삼는 것은 그 개념을 명제적 지식으로서 익히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경유하여 모종의 개념을 추론해 가는 사고 과정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언어를 기호로서 바라보고 이를 둘러싼 맥락을 고려하는 국어 교육의 본질과도 맞닿아 있다.

8) 『언어와 매체』 교과서인 천재교육(민현식·신명선·오현아·이지은·안장호·조진수 외

은 ‘매체 언어의 탐구와 활용’ 단원에서 직간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었으며, 활동이 중심이 되는 단원인 만큼 설명 텍스트로 ‘공정성’의 개념을 제공하기 보다는 그 개념이 교과서 날개 부분에 간단히 제시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한 기술 양상은 다음과 같다.

〈표 2〉 교과서에서의 ‘공정성’ 관련 개념 기술 양상 비교

교과서명	‘공정성’ 개념 및 관련 내용 기술 양상
미래엔	다양한 매체 자료들을 비판적·주체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비상교육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고려하면서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지학사	뉴스의 보도 윤리 - 뉴스의 공정성: 논쟁 중인 쟁점이나 갈등 상황을 뉴스로 다룰 때는 양적, 질적으로 균형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함. - 뉴스의 정확성: 과장이나 허위 없이 정확한 정보와 사실을 보도하되, 사실을 둘러싼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해야 함. - 뉴스의 중립성: 중립적인 자세로 사건과 문제의 진실에 접근해야 함.
창비	매체 자료를 수용할 때에는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고려하는 것과 더불어 비판적 태도도 갖 추어야 한다. 즉 자료에 담긴 관점과 가치가 공정한지, 생산자의 주장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타당한지, 제시된 정보나 자료는 신뢰할 만한 것인지 등을 판단하며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천재교육	매체 자료를 수용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 매체 자료의 출처는 어디이며, 생산자는 누구인가? • 매체 자료의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가? • 생산자가 대상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은 무엇인가? • 강조하거나 드러내려 하는 정보는 무엇이고, 누락된 정보는 무엇인가? • 매체 자료의 내용은 누구의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있는가?

2019), 미래엔(방민호·신서인·오현숙·이용광·김태경, 2019), 비상교육(이관규·박경희·신호철·신희성·이동석·정지현 외, 2019), 지학사(이삼형·김창원·양정호·안혁·하동원·박찬용, 2019), 창비(최형용·강영준·권태윤·박재연·박종오·소신애 외, 2019) 5종을 분석 대상으로 삼으며, 교과서 제시 방식은 ‘출판사명’으로 한다.

〈표 2〉처럼 공정성을 유관 개념과 비교하여 명시적으로 제시한 교과서는 ‘지학사’뿐인데, 뉴스 보도 윤리의 하위 조건 중 하나로 언급된다. ‘창비’에서는 공정성을 다루고 있기는 하나 정확히 텍스트의 어떤 속성을 말하는지는 기술되지 않아 학습자는 공정성이 필자의 관점과 관련될 것이라는 점을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매체 자료를 통해 ‘공정성’을 탐구해 보는 학습 활동은 주로 ‘기사문’이나 ‘뉴스 보도문’을 주된 텍스트로 삼아 구현되는 양상을 보인다. 다시 말해 ‘공정성’은 주로 정확한 사실, 객관적 근거나 정보를 요구하는 텍스트가 지녀야 할 특성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다음 교과서의 학습 활동을 살펴보자.

1. 다음 매체 자료를 읽고, 방송 뉴스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과 이를 수용하는 바람직한 자세에 관해 생각해 보자.

- (3) ‘독버섯’과 관련하여 위 뉴스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정보를 찾아보고,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다른 관점에서 뉴스의 내용을 구성해 보자.

예시 답

다루지 않는 정보	다른 관점의 뉴스 내용
• 독버섯과 식용 버섯을 구분하는 방법 • 독버섯을 먹었을 때, 해독하는 방법 • 독버섯의 분포와 생태	• 버섯 채취 시 유의할 점 소개 • 독버섯의 성분과 해독할 수 있는 약 소개 • 독버섯이 어떤 환경에서 잘 자라고, 어떤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지 소개

- (4) 뉴스와 같이 시청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 자료에서 중시되어야 하는 요건은 공정성과 정확성이다. 이 점을 고려하여 위 뉴스에서 공정성과 정확성이 드러나는 부분을 찾아보자.

예시 답 공정성: 버섯의 무단 채취 상태를 보여 주면서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는 부분
정확성: 모양이 비슷한 식용 버섯과 독버섯을 시각 자료로 비교하여 제공하는 부분

〈그림 3〉 ‘지학사’ 3. 매체 언어의 탐구와 활용. (2) 매체로 주고받는 정보

〈그림 3〉은 뉴스를 인용하여 방송 뉴스라는 매체의 특성과 내용을 파악하는 활동에서부터 기사의 공정성, 정확성을 판단해 보는 활동으로 꾸려져 있다. 그런데 (4)에서 보듯 공정성과 정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나 언어적 요인이 안내되지 않은 채 활동이 제공되고 있고, 교사용 교과서의 예시 답처럼 공정성이 ‘주장에 대한 근거를 상세히 설명해 주면 확보되는 것’처럼 기술되고 있어 문제적이다. 즉 공정성이 타당성과 혼재되어 쓰이고 있다.⁹⁾

‘창비’ 교과서의 경우 관점이 다른 두 카드 뉴스를 가져와 비교하는 활동을 구성하고 있다. 이 교과서에서는 ‘혼밥’이 늘어나는 사회 현상을 상반된 시선으로 접근하는 카드 뉴스를 공정성 판단의 대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편집자의 주관이 개입된 매체 자료에 해당한다. 특히 카드 뉴스의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을 판단해 보는 활동을 구성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다음을 보자.

(2) (가)와 (나)가 ‘혼밥’ 문화를 어떤 관점과 가치로 바라보고 있는지 파악해 보고, 그렇게 생각한 근거를 적어 보자.

예시답안

(가)		(나)	
관점과 가치	근거	관점과 가치	근거
혼밥을 새로운 문화 현상(자신만을 위한 즐거운 시간)으로 봄.(긍정적 관점)	‘혼밥’ 연관 인터넷 감정 관련 단어 1~3위가 긍정적인 감정 표현인데 이를 강조하여 나타냄.	혼밥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봄.(부정적 관점)	- 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혼밥은 나쁜 식습관과 비만이나 저체중을 유발함을 주장함. - 국민 건강 영양 조사 결과를 통해 혼밥은 우울증 위험도를 높일 수 있음을 강조함.

9) 긍정적인 점은 ‘기사문’, ‘다큐멘터리’, ‘인터넷 블로그 글’을 추가적인 자료로 삼아 매체 자료에 따라 정보의 신뢰성, 유용성, 공정성을 고려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다루는 데 기사문, 뉴스 기사만을 활용하는 타 교과서와 달리 좀 더 다양한 자료를 동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3) 다음 사항들을 점검하며 (가)와 (나)를 비판적으로 수용해 보자.

예시 답안

	(가)	(나)
신뢰성	인용한 정보나 자료의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음.	인용한 말과 자료의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음.(국민 건강 영양 조사)
공정성	관련 자료를 조사해 보니 4위의 '힘들다(6,395건)'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판단됨.	특정 연령층과 관련한 정보나 자료를 주로 제시함.
타당성	제시한 설문 자료가 혼법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뒷받침하고 있음.	제시된 세 개의 조사 결과나 연구 결과 자료가 혼법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뒷받침하고 있음.

〈그림 4〉 '창비' III-(1). 매체 자료의 수용

〈그림 4〉의 (3)에서 언급된 '공정성'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특정 연령층과 관련한 정보나 자료를 주로 제시하여 정보를 균형 있게 보여 주고 있지 못하다는 점, 다소 불리한 자료는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점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주로 정보의 양적, 질적 균형성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이는 공정성을 해치는 언어 표현이나 문법 형태에 주목하기보다는 먼저 텍스트의 내용적 측면을 중심으로 공정성 관련 교육 내용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¹⁰⁾

한편, '천재교육' 교과서의 경우 공정성을 판단하는 활동을 구현하면서

10) 또한 이 교과서에서는 추가적으로 뉴스의 '게이트 키핑'에 관한 지식 채널 e 방송 자료를 활용하여 뉴스의 비판적 수용에 관한 활동을 구성하고 있어 특징적이다. 가짜 뉴스와 관련하여 뉴스의 목적은 정확한 사실과 정보의 전달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경우 학습자가 특정한 텍스트를 공정성의 탐구 대상으로 활용하는 활동을 구성한 것이 아니라, 관점에 따라 정보를 선택 및 수집하는 현상 자체에 대해 이해하는 활동으로 봐야 할 것이다.

다소 다른 성격의 텍스트를 활용하고 있는데, ‘게임 중독’에 관해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는 두 사설 기사를 가져와서 비교해 보는 활동을 구성하고 있다. 다음을 살펴보자.

2 가, 나에서 부각되는 ‘게임 중독’과 ‘게임 산업’에 대한 관점을 정리해 보자.

	가	나
‘게임 중독’에 대한 관점		
‘게임 산업’에 대한 관점		

3 가, 나에 나타난 주장과 근거를 찾고 내용의 사실성과 타당성을 판단해 보자.

4 가, 나에의 내용이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것은 아닌지 판단해 보자.

5 1~4와 다음 글을 참고하여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려면 어떠한 점들을 따져 보아야 할지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자.

신문은 많은 정보를 심층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체이다. 이러한 특성 덕에 신문은 여론을 형성하고 창출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그런데 사건을 기사로 구성할 때에는 특정 조직의 지배적 사고와 언론인 개인의 가치관이 반영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기사는 특정 집단의 이해를 반영하거나, 사건을 왜곡할 수도 있다.

그런데 대중은 신문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매체라고 여기기 때문에 기사의 내용을 정확한 정보로 여기고 받아들이게 된다. 신문에 담긴 이념적 주장이나 가치, 혹은 왜곡을 쉽게 알아채지 못하는 것이다.

〈그림 5〉 ‘천재교육’ IV. 3. 매체의 수용과 향유

교과서에서는 기사문에 대해 대체로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점을 ‘공정성’의 주된 요소로 지적하면서 이를 기사문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속성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공정성을 판단할 때 사용되는 기사문이나 카드 뉴스를 보면, 같은 기사문이어도 정보 전달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교과서에서는 ‘기사문’이 ‘정보 전달’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기술되고 있지만, 학습 활동에서 활용하는 기사문들은 ‘정보 전달’뿐 아니라 필자의 주관적 관점을 피력하는 성격의 것들도 혼재돼 있다. 사실 기사는 다른 보도 기사들과 달리 언론사의 주관적 견해가 두드러지므로 설득적 성격이 더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이에 생각을 전환해 보면, ‘공정성’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텍스트에서만 작동하는 속성이 아니라 모어 화자에게 ‘공정함’이 필요하다고 인식되는 모든 텍스트에 적용될 수 있다. 이는 조진수 외(2019: 114)에서 언론의 담론적 조정 역할은 중립성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공정성을 구성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견해와도 궤를 같이한다.

더하여 본고는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문’의 경우 교과서에서 ‘공정성’을 다룰 때 거의 동원되지 않는다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이는 ‘공정성’을 가장 대표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텍스트가 기사문이다 보니, 광고문은 상대적으로 공정성을 다룰 때는 잘 활용되지 않으며, 광고문은 ‘광고 문구’가 갖는 창의적 표현이나 설득 전략에 더 초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¹¹⁾

이상으로 『언어와 매체』 교과서에서 공정성은 주로 텍스트의 내용적 측면에 주목하는 방향으로 다루어져 온 것, 그리고 기사문이라는 범박한 텍스트 유형 안에서 텍스트의 특정한 장르성에 대해서는 살피지 않고 공정성을

11) 공정성은 사실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조진수 외, 2019: 119)을 고려하면, ‘광고문’은 특정한 현상이나 상품의 장점을 부각하기 위해 창의적인 표현을 동원하는 텍스트, 즉 ‘사실이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수용자들이 인식하고 오히려 표현의 독특함이나 신선함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기사문과 주목하는 지점이 다른 셈이다.

판단하는 학습 활동으로 구성되어 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본고는 공정성을 비롯한 텍스트의 특성, 장르성과 언어 형식을 관련지어 보는 교육 내용이 전혀 제공되고 있지 않은 현상을 문제로 지적한 바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국어 자료와 갈래에 관한 교육 내용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다음을 보자.

- (10) ‘천재교육’ IV. 문장과 담화, 매체 문화의 향유-2. 담화의 다양한 갈래/ 국어 자료의 다양한 갈래-구체적 갈래에 따른 국어 자료

1. 기사문

기사문은 ‘표제, 부제, 전문, 본문, 해설’로 구성된다. (중략) 기사문의 언어적 특성으로는 인용 표현과 피동 표현이 많이 사용되는 경향을 들 수 있다.

2. 보도문

보도문은 크게 도입부, 중반부, 후반부로 구성된다. (중략) 보도문의 언어적 특성으로는 방송이 속보성을 중시하는 현재성 매체이기 때문에 신문 기사문 보다 현재 시제를 많이 활용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4. 광고문

광고문은 홍보의 효과를 올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중략) 광고문의 언어적 특성으로는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축약적이고 재미있는 발상이 드러나는 표현이 빈번하게 사용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10)은 국어의 갈래와 국어 자료에 관한 단원에 공통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설명 텍스트이다. ‘국어 자료’가 이전에는 문법 개념을 적용해 보기 위한 물리적 자료로만 다루어져 오다가 해석의 대상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유의미하지만, 특정한 갈래의 언어적 특성을 결과론적으로 제공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점은 문제적이다. 이러한 문제는 학습 활동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1) ㉡의 기사문을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해 보자.

피동문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문장이 있네. 왜 그런 걸까?

예시 답안

- 피동문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문장이 있네. 왜 그런 걸까? ‘날씨가 조금은 물리겠다’와 같은 표현은 ‘무엇이 날씨를 물었다’와 같은 능동문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피동문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갑기에 걸리다’와 같은 표현 역시 ‘무엇이 갑기를 걸다’와 같은 능동문으로 만들 수 없어서 피동문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간접 인용문에 큰따옴표를 사용한
까닭은 무엇일까?

- 간접 인용문에 큰따옴표를 사용한 까닭은 무엇일까? 네 번째 문장은 큰따옴표를 제외하면 “기상청은 내일 아침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에서 보듯이 간접 인용을 나타내는 조사 ‘고’를 사용한 간접 인용문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간접 인용문에 큰따옴표를 사용한 데는 취재 내용 중에서 기자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강조하여 독자의 주의를 끌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그림 6〉 ‘참비’ II. (2) 다양한 국어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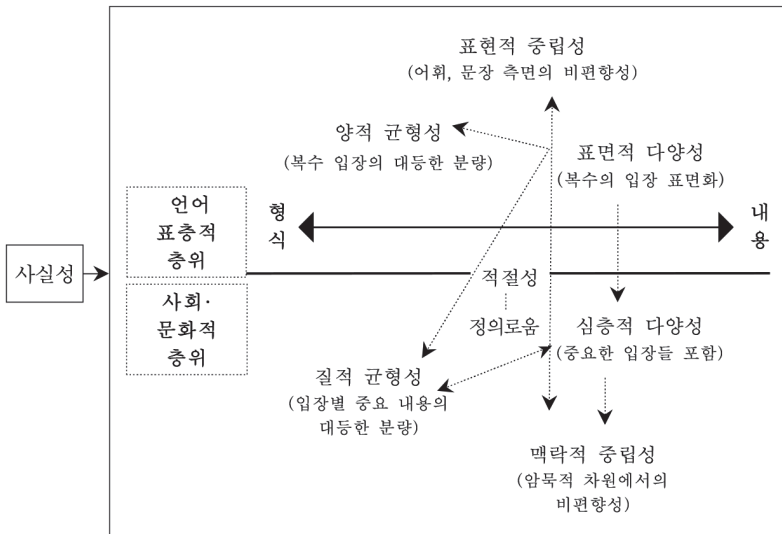
〈그림 6〉을 보면, 기사문에 사용되는 특정한 문법 표현의 의도를 파악해 보는 활동이 제공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그 의도는 피상적이다. 먼저 ‘피동문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문장’은 예시 답안에서 추론할 수 있듯 통사적으로 능동문 실현이 불가능한 피동문이어서 기실 기사문 장르의 언어적 특성이라고 해석하기 어렵다. 인용문의 따옴표와 관련한 기술은 기사문의 언어적 특성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필자의 의도를 강조하기 위한 언어 형식을 기사문의 장르성으로 관련지어 기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시 말해 현재 『언어와 매체』 교과서에서는 결과물로서 구체적 갈래를 제시하고, 해당 갈래에 나타나는 언어적 특성을 찾아보도록 하지 않은 채 언어 목록을 단순히 제공하는 데 그치고 있다. 특정한 언어 형식이 왜 선호되는지에 대한 활동이 빠져 있어서 애초에 해당 성취기준이 추구하고자 했던 ‘언어 형식과 텍스트와의 관계 탐색’이라는 경험이 차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IV. 텍스트의 공정성 판단 기준의 구체화 및 교육 방향 제안

1. 텍스트의 공정성 판단 구인 간 관계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텍스트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상세화하고, 그에 따른 교육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공정성 개념의 구인과 관계를 정리한다. 이를 위해 그간 공정성의 하위 개념으로 언급되어 온 ‘사실성’, ‘균형성’, ‘중립성’, ‘다양성’, ‘적절성’을 기반으로 조진수 외(2019)의 논의와 교과서 분석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공정성 개념을 구체화하였다.



〈그림 7〉 텍스트의 공정성 판단을 위한 구인 및 구인 간 관계

먼저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 공정성의 하위 개념으로 ‘사실성’을 상정한

이유는 조진수 외(2019: 106)에서도 명시하였듯 공정성이 객관성 개념에서 출발한 데다가 포괄적인 개념으로 인지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사실성은 공정성의 전제 요소로 기능한다. 주지하듯 사실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공정성을 논하기 어렵고,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한발 더 나아간 신뢰성을 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본고에서는 사실성을 공정성의 구인으로 상정하지 않는다.

이어서 ‘균형성’, ‘중립성’, ‘다양성’은 조진수 외(2019)에서와 같이 언어 표층적 층위와 사회·문화적 층위에서 판단해야 할 구인으로 세분할 수 있다. 즉, 균형성, 중립성, 다양성은 각각 ‘언어 표층적 층위’에서 ‘양적 균형성’, ‘표현적 중립성’, ‘표면적 다양성’으로, ‘사회·문화적 층위’에서 ‘질적 균형성’, ‘맥락적 중립성’, ‘심층적 다양성’으로 상세화된다. 다만, 언어 표층적 층위에서의 구인은 다시금 텍스트 구조를 포함하여 언어 형식 전반을 포괄하는 텍스트의 ‘형식’과, 이에 대별되는 ‘내용’ 측면의 스펙트럼상에서의 위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고려하면 복수의 입장을 문장 차원, 문단 차원, 텍스트의 구조 차원에서 대등하게 다루는 것과 관계된 ‘양적 균형성’은 텍스트의 형식적 측면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지점인 데 반하여 ‘표면적 다양성’은 내용적 차원에서 특정 주제와 관련된 복수의 입장을 담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지점이 된다. 그리고 ‘표현적 중립성’은 사태에 대한 태도가 특정 가치를 편향하는 수식어, 인용 동사, 태도 어휘 등의 사용을 통해 드러나지 않는지를 텍스트의 형식, 내용적 차원 모두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성격의 것이 된다.

한편 사회·문화적 층위에서의 ‘질적 균형성’은 텍스트의 문장, 문단, 구조 차원에서 각 입장의 핵심적인 내용과 근거가 대등한 분량으로 다루어졌는지의 여부와 관계된 것으로 양적 균형성과 함께 텍스트의 형식적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구인이다. 반면 ‘심층적 다양성’은 텍스트의 내용적 차원에서 특정 입장을 뒷받침하는 통계 등의 자료가 배제되지 않았는가를 판단하는 구인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맥락적 중립성’은 내용상 암묵적 차원에서 특정

태도를 지향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는가를 판단하는 공정성의 하위 구인이다.

이상의 균형성, 중립성, 다양성은 ‘적절성’과 ‘정의로움’을 염두에 둔 가운데 판단되어야 한다. 적절성은 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가치가 있는 보도를 하는가에 대한 것을 뜻하는데, 이 같은 의미가 다소 범박하고 추상적이라는 점에서 판단의 주관성이라는 문제가 따른다. 그럼에도 적절성은 균형성, 중립성, 다양성을 따져 보는 가운데 이와 같은 판단이 ‘적절성’에 배치되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행할 필요가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정의로움’은 공공의 이익, 보편적 가치에 저해되지 않는 내용인가와 관련한 개념이다. 즉, 텍스트에서의 균형성, 중립성, 다양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들이 정의로움에 배치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이상의 구인들은 각 특성에 따라 특정 구인과 보다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예컨대, ‘표면적 다양성’의 판단은 텍스트에 표면화된 복수의 입장이 양적, 질적으로 ‘균형성’ 있게 다루어지는지에 대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표면적 다양성’은 복수의 입장들 중 중요한 입장이 텍스트에 포함되어 있는지와 관련된 ‘심층적 다양성’, 입장별 핵심 내용이 대등하게 다루어지는지와 관련된 ‘질적 균형성’에 대한 판단의 전제 구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그러한 입장들이 암묵적 차원에서 편향성을 띠지 않는지를 살피는 ‘맥락적 중립성’을 판단하는 과정으로 연계될 수 있다. 또한 표현적 중립성과 맥락적 중립성은 중립성 내에서 양자가 모두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관련성을 가진다. 이 같은 구인 간 관계는 텍스트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단계적 경로를 설정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공정성 판단 기준의 구체화 및 교육의 방향

앞서 1절에서 상술한 공정성 개념의 구인과 그 관계를 국어 교육 내용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각 구인들이 어떠한 ‘언어적 요인’을 통해 주로

드러나는지 논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림 7>을 바탕으로 텍스트의 공정성 판단 기준과 각 기준을 판단할 수 있는 언어적 표현의 종류를 <표 3>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3〉 텍스트의 공정성 판단 기준과 관련한 언어 형식의 목록

하위 개념	층위	형식/ 내용	구인	기준
균형성	언어 표층적	형식	양적 균형성	텍스트에 여러 입장을 대등한 분량으로 다루고 있는가? • 문장, 문단 길이, 텍스트 내용 구조
	사회·문화적		질적 균형성	텍스트에 입장별 중요한 내용을 대등한 분량으로 다루고 있는가? • 문장, 문단, 텍스트 구조 차원에서 핵심 근거의 비중 차이, 제공한 자료의 중요도 차이
중립성	언어 표층적	형식 / 내용	표현적 중립성	텍스트에서 어휘, 문장 측면의 언어 표현이 비편향적인가? • 수식어, 인용 동사, 태도 어휘, 접속 표지, 문단 내 필자의 입장이 드러난 문장의 위치
	사회·문화적		맥락적 중립성	텍스트의 언어 표현이 암묵적 차원에서 비편향적인가? • 양태 표현, 보조사
다양성	언어 표층적	내용	표면적 다양성	텍스트에 여러 입장이 표면화되어 있는가? • 주어, 다양한 주체를 함의하는 표현
	사회·문화적		심층적 다양성	텍스트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여러 입장들이 배제되지 않고 포함되어 있는가? • 통계나 자료의 의도적 누락/과장
↓ ↓ ↓				
적절성	지나친 개인적 보도를 지양하면서 주제와 밀접하며 가치가 있는 내용인가?			
: : :				
정의로움	공공의 이익, 보편적 가치에 저해되지 않는 내용인가?			

〈표 3〉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본 연구는 공정성의 다차원적 구인이 궁극적으로는 ‘적절성’과 ‘정의로움’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자 하였

다. 전술한바, 공정성은 적절성과 정의로움 속에서 유의미하게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3〉의 기준에 따라 3장 2절의 교과서 분석 결과를 되짚어 보면, 기존에 파편적으로나마 제공되었던 공정성 판단 관련 교육 내용은 주로 내용의 균형성이나 다양성에 초점을 두어 온 것으로 판단된다. 조진수 외(2019)에서도 공정성의 각 구인들이 갖는 성격을 논구하면서 다른 구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균형성을 더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텍스트 구조 차원이나 문장의 길이, 특정한 내용의 반복 정도의 판단을 통해 텍스트의 균형성을 확인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다양성의 경우는 〈표 3〉에서도 보인 바와 같이 특정한 견해를 뒷받침하는 통계나 관련 자료를 일부러 은폐하거나 과장하는 경우가 없는지를 파악하거나,¹²⁾ 텍스트에서 행위 주체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언급되어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로 주목되어 왔다.

한편, 중립성 구인은 필자가 사태에 대한 태도를 표현하고자 할 때 특정한 가치를 담지하는 내용어를 사용하거나 그러한 내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양태 표현이나 보조사 등의 사용을 통해 암묵적으로 필자의 편향성을 드러내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다른 구인들과 달리 중립성 구인은 공정성 관련 교육 내용에서는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적이 없다는 것이다. 3장 1절에서도 상술한바, ‘공정성’이 그간 문법 교육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주로 독서나 작문 교육에서 다루어졌기에 단어나 형태소 층위에 드러나는 공정한 ‘표현’에 대해서는 교정적 차원에서만 언급되어 온 셈이다. 그러나 세상사에서 ‘공정한 태도’에 관한 논쟁은 단어나 조사, 어미 층위에

12) 조진수 외(2019: 119)에서는 ‘다양성’에 대해 텍스트에 담긴 입장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에 담겨야 할 입장까지 고려해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이는 텍스트에 드러난 표현을 넘어서서 텍스트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에 관한 폭넓은 지식도 함께 요구된다는 점에서 ‘드러난 언어적 표현’에 주로 주목하는 균형성, 중립성과는 다소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서도 첨예하게 일어난다. 다시 말해, 실제 언어생활에서 ‘공정함’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지점은 오히려 단어 하나, 조사 하나의 쓰임일 것이다. 그렇다면 문법 교육에서 공정성¹³⁾은 상대적으로 소략하게 다루어져 온 ‘중립성’을 향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 내용이나 학습 활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연구는 아니지만 예비 초등 교사를 대상으로 공정성에 대한 모어 화자의 인식을 분석한 이관희(2021)의 접근 방식은 본고의 주요한 참고점이 된다. 이관희(2021: 211-217)에서는 공정성에 관한 모어 화자의 인식을 살펴면서 네 개의 기사문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표시한 후 근거를 작성하도록 하여 공정하지 않은 언어 표현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4〉 모어 화자의 인식에 근거한 ‘공정하지 않은 언어 표현’의 유형 사례(이관희, 2021: 211-217 참고, 〈표 4〉는 연구자)

언어 표현의 유형	사례
주관적 수식어의 사용	- 그린 의원의 주문에도 미 당국자는 중립적인 견해를 밝혔다. - 진단 키트의 유효성에 대해서도 국수적 관점에서 미국 보건 당국에 질문했다.
쟁점화를 위한 언어 표현	- 한국 진단 키트 신뢰성 논란
긍정적, 부정적 태도를 함의하는 어휘	- 미국 여론에서 호평 을 받고 있는 한국의 (중략) 진단 키트 - 그린 의원의 항체 관련 지적 에 대해

- 13) 텍스트의 ‘공정성’을 국어 교육에서 다루고자 할 때 주로 동원되는 기사문에 대한 제민경(2015), 제민경·남가영·이관희·주세형(2016)의 견해는 ‘중립성 구인’과 관련하여 주요한 참고점이 될 수 있다. 제민경(2015: 117-118)에서는 기사문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인용 표현이 필자의 주관이 객관적으로 보이게끔 하기 위한 도구로, ‘사건의 객관적 보도’라는 목적 변인의 인식하에 출현하는 언어 형식임을 강조하면서 ‘목소리의 중층성’을 기사문의 장르성으로 보았다. 이를 공정성과 관련지어 해석한다면, ‘목소리의 중층성’은 공정한 기사처럼 보이기 위한 기사문의 특성이 된다. 그렇다면 기사문에 사용되는 ‘인용 표현’이나 ‘피동 표현’은 중립성을 암묵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언어적 표현으로 해석 가능하다.

주관성이 드러나는 보조사	- 자국 기준에 맞는 키트만 사용하겠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인용 동사의 선택	-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이 서면 답변을 근거로 '미 보건 당국이 한국의 진단 키트를 채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해

〈표 3〉의 공정성 판단 기준에 근거하면 이관희(2021)를 재구성한 〈표 4〉는 공정성 구인 중 중립성에 주로 주목하는 분석으로 볼 수 있다. 가령 ‘중립적인’이나 ‘호평’, ‘논란’과 같은 어휘들은 해당 표현 자체에 필자의 견해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 ‘표현적 중립성’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더하여, 이는 공정성 판단 기준 중 ‘정의로움’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한편 보조사 ‘만’이나 인용 동사의 경우 중립성 구인이 어휘 차원보다 한층 의도적이고 암묵적으로 실현되므로 ‘맥락적 중립성’과 관련이 있다. 예컨대 ‘키트’ 자체는 특정한 가치 개입이 일어나지 않은 어휘이지만 보조사 ‘만’을 동원함으로써 미국의 입장을 보다 이기적인 것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더욱 은밀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공정성 관련 교육 내용이 ‘공정하지 않은 언어 표현’에 대해서는 크게 다뤄진 바가 없기에 〈표 4〉의 결과는 공정성 판단 기준과 관련한 국어 교육을 형식적 측면, 즉 ‘중립성’과 관련한 공정성 교육 내용으로까지 확장하여 설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다. 예컨대 학습 활동을 구성할 때 ‘공정하지 않은 언어 표현’의 사례 유형으로서 제시될 수도 있고, 학습자가 형식적 측면에서 공정성을 판단해 볼 수 있게끔 교사가 안내하고자 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텍스트의 공정성 판단을 위한 교육 내용을 〈표 5〉와 같이 목록화하였다.

〈표 5〉 텍스트의 공정성 판단을 위한 교육 내용

• 텍스트의 공정성 판단을 위한 구인 이해하기 • 텍스트의 공정성이 추구되어야 하는 국어 자료와 그렇지 않은 국어 자료의 차이점 알기 •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다룬 텍스트의 공정성을 '균형성' 측면에서 평가하기 •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다룬 텍스트의 공정성을 '다양성' 측면에서 평가하기 •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다룬 텍스트의 공정성을 '중립성' 측면에서 평가하기 • 텍스트의 특성에 따라 공정성의 구인 간 밀접한 관계를 지니는 것끼리 연결 지어 텍스트의 공정성 평가하기 • 텍스트의 특성에 따라 공정성 판단 기준의 중요도 평정하기 • 특정한 언어 형식이나 내용이 텍스트의 공정성에 끼치는 영향과 그 이유에 대해 공정성 판단 구인을 중심으로 살피기	이해  해석
---	---

학습자에게 아무런 지식을 제공하지 않고 텍스트가 공정한지 여부를 판단해 보도록 하는 것은 일상적 경험 이상의 가치를 지니기 어렵다. 즉 텍스트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안내하는 교육이 전제되어야¹⁴⁾ 그 이후에 텍스트를 해석하는 경험이 교육적으로 유의미해질 수 있다. 따라서 〈표 5〉의 오른쪽에 교육 내용의 성격을 도식화하였듯 공정성 구인에 대한 ‘이해’에서 이를 적용하여 텍스트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해석’으로 계열화하는 방향으로 교육 내용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공정성 판단 기준은 그 경계가 명료하다기보다는 하나의 언어 형식 안에서도 복수의 구인이 작동하면서 공정성의 정도를 드러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텍스트에서 공정성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말 그대로 ‘표현된 언어 형식’에 있으므로, ‘표현된 언어 형식’을 경유하여 공정성 판단을 위한 구인을 다각도로 해석해 보는 활동을 구안할 필요가 있다.

14) 윤천탁(2014: 361)에서도 공정한 어휘 사용 교육의 단계를 구안하면서 공정한 어휘 표현에 관한 정보를 안내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바 있어 본고와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여기서 제시한 공정한 언어 표현 지도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

- 공정성 검토가 필요한 언어 표현의 제시 ⇒ ‘공정한 표현’ 판단 기준의 적용 및 개인적 차원에서 공정성 판단 유도 ⇒ 타인 존중을 바탕으로 하여 대인 관계적 차원에서 공정성 판단 유도 ⇒ 공정성 검토 대상 언어 표현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 제공 ⇒ 특정 언어 표현에 대한 지지 또는 대체 표현의 생성 유도

주지하였듯 공정성 구인은 텍스트의 특성에 따라 그 판단의 정도가 다양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는 텍스트의 특성에 따라 공정성 구인의 중요도를 평정해 보는 교육 내용 역시 구안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예컨대 같은 기사문이라 하더라도 ‘표면적 다양성’이나 ‘균형성’의 경우 사실 기사에서는 판단이 어려운데, 사실 기사 자체가 특정한 입장을 대변하면서 논리를 펼치는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기사가 특정한 견해를 지지한다 하더라도 독자들은 그러한 견해가 ‘정당한 판단’에 근거한 것인지, 혹은 ‘공정한 가치’를 지향하는 것인지는 언어적 표현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실 기사의 경우 표면적 다양성이나 양적 균형성보다는 중립성을 비롯한 다른 구인에 더 가중치를 두어 공정성을 평가하는 것이 더 적절한 접근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학습자가 텍스트의 특성에 따라 공정성의 구인이 다르게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내면화하고 이를 언어생활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 내용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국어 교육의 장에서 ‘공정성’ 개념 및 판단 기준에 대한 상세화된 논의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텍스트 차원에서의 공정성 판단 기준을 정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문법 교육 방향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공정성 개념에 관한 국어 교육 및 그 외 영역에서의 이론적 검토를 통해 공정성 개념의 문법 교육적 논의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교육과정 및 교과서 층위에서 공정성 개념이 다루어지는 양상을 고찰하여 한계와 개선되어야 할 지점을 살폈다. 이상의 과정을 바탕으로 공정성 개념의 구인 및 구인 간 관계를 명료히 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정성 판단 기준을 상세화하였다. 그리고 이를 교육 내용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향을 보였다.

이 같은 본고의 논의는 그간 상세한 기준이 부재한 채 다소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다루어져 오던 공정성에 대한 교육 내용을 문법 교육적 관점에서 구체화한 실제태를 마련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다만 본고는 이론적 논의에 기대어 공정성 개념과 판단 기준을 상세화하였다는 점에서 교사, 학습자 등의 교육 주체들이 공정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본고의 공정성 개념 및 판단 기준과 비교하여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화된 교육 내용을 마련한다면 공정성과 관련하여 한층 발전된 교육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본 논문은 2022.07.20. 투고되었으며, 2022.08.07. 심사가 시작되어 2022.09.13.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강명구(1994), 『한국저널리즘 이론』, 서울: 나남.
- 강태영·권영설(2000), 『방송의 공정성에 관한 연구』, 서울: 방송위원회.
- 교육부(2015), 『국어과 교육과정(제2015-74호)』, 세종: 교육부.
- 권형돈·하주용·배진아(2015), 『방송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KCC-2015-35)』, 경기: 방송통신위원회.
- 김선량(2020), 「'공직선거법'상 선거보도 공정성 심의의 심사기준에 관한 연구-공정성 개념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48(4), 145-172.
- 김현강(2016), 「언론의 공정성 개념-신문 사설에 대한 담론적 접근」, 『담화와 인지』 23(1), 57-87.
- 류춘렬(2018), 「종이 신문 이용자의 만족도 연구-독자의 공정성과 신뢰성 판단이 주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30(2), 73-101.
- 문중대·안차수·진현승·안순태(2007), 「언론 수용자의 공정성 개념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38(2), 183-210.
- 민현식·신명선·오현아·이지은·안장호·조진수·박진희(2018), 『언어와 매체』, 서울: 천재교육(주).
- 방민호·안효경·신서인·오현숙·이용광·김태경(2018), 『언어와 매체』, 서울: 미래엔(주).
- 배선영·이봉규·이상우(2010), 「언론 수용자의 공정성 평가가 매체 이용에 미친 영향 분석」, 『방송통신연구』 70, 87-116.
- 신상민(2015), 「방송심의의 행정소송법상 쟁점과 신뢰성 제고 방안-공정성 심의를 중심으로」, 『미니어와 인격권』 1(1), 157-193.
- 윤천탁(2014), 「인성 교육을 위한 어휘 교육 실천으로서 '공정한 표현'지도 단계 구안」, 『청람어문교육』 49, 347-374.
- 이관규·박경희·신호철·신희성·이동석·정지현·하성욱(2018), 『언어와 매체』, 서울: 비상교육.
- 이관희(2021), 「언어의 공정성과 문법 교육-공정성에 대한 모어 화자의 인식」, 『제34차 한국문법교육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7-220.
- 이민웅·이창근·김광수(1993), 「보도공정성의 한국적 기준을 위한 연구」, 『방송연구』 36, 180-213.
- 이삼형·김창원·양정호·안혁·하동원·박찬용(2018), 『언어와 매체』, 서울: 지학사.
- 이창현(2002), 「선거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재개념화와 공정성 실현 장치의 기능과 한계」, 『사회과학연구』 15, 353-370.
- 정동우·황용석(2012), 「공정성 개념에 대한 신문기자들의 인식 차이 연구-객관주의적·탈객관주의적 관점의 통합모형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20(3), 120-158.
- 조진수·박재현·이관희·김지연(2019), 「'공정성'의 국어교육적 개념화 방향 탐색」, 『국어교육연구』 71, 93-134.
- 최경봉·김윤신·이동석·주세형(2017), 『국어 선생님을 위한 문법 교육론』, 서울: 창비교육.

- 최형용·강영준·권태윤·박재연·박종오·소신애·송찬욱·오세호·임요한(2018), 『언어와 매체』, 서울: 창비.
- 제민경(2015), 「장르 문법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제민경·남가영·이관희·주세형(2016), 「왜 기사를 선택하는가」, 『언어학 연구』 39, 337-375.
- Rosengren, K. R. (1980), Bias in news: Methods and concepts, In G. C. Wilhoit & H. de Bock (Eds.), *Mass communication review yearbook*, London: Sage.
- Westerstahl, J. (1983), "Objective news reporting: General premises", *Communication Research* 10(3), 403-424.

텍스트의 공정성 판단 기준에 관한 문법 교육적 탐색

— 『언어와 매체』 교과서를 중심으로

최선희 · 김정은

본고는 국어 교육에서 공정성이 꾸준히 다루어져 왔음에도 공정성의 개념과 판단 기준에 대한 천착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공정성은 비판적 언어 인식을 교육 내용화하는 과정에서 텍스트의 사회 문화적 접근을 꾀하기 위한 입각점으로 인식되는데, II 장에서는 정치 철학, 언론학 등에서 공정성 개념이 언급되어 온 내용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어 교육에서의 관련 연구를 살펴 공정성과 유관 개념과의 관계를 명료히 하였다. III 장에서는 『언어와 매체』에서 공정성이 교육 내용으로 구현된 모습을 교육과정과 교과서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IV 장에서는 공정성 개념의 구인과 구인 간 관계를 밝히고, 텍스트의 공정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텍스트의 공정성 판단을 위한 교육 방향을 제안하였다. 이 같은 본고의 논의는 공정성 개념이 내포하는 하위 구인을 명확히 하여 공정성에 대한 문법 교육 방향을 구체적으로 탐색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핵심어 국어 교육, 문법 교육, 텍스트, 공정성 판단 기준, 교과서

ABSTRACT

Grammar Educational Exploration on the Fairness Criteria of Text

— Focusing on the “Language and Media” Textbook

Choi Sunhee · Kim Jeongeun

This study starts with the awareness of the problem that although fairness has been continuously addressed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the concept of fairness and criteria for judgment. As fairness is recognized as a scaffold for seeking the socio-cultural approach to text in the process of producing critical recognition regarding language into educational contents, Chapter 2 examines how the concept of fairness has been mentioned in fields such as political philosophy or journalism so far. Accordingly, it attempts to clarify the concept of fairness and associations between that and relevant concepts by reviewing related studies performed in the area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Chapter 3 critically analyzes how fairness is embodied as educational contents in the area of “Language and Media” regarding the curriculum and textbooks.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 Chapter 4 reveals the constructs that form the concept of fairness and relations among the constructs and specifies the criteria for judging the fairness of text. Furthermore, grounded on that, this study proposed educational direction for judging the fairness of text in the aspects of learning activities. The discussion of this research is significant in that it has identified the subconstructs implied in the concept of fairness and proposed educational direction of grammar education regarding fairness concretely.

KEY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mmar Education, Text, Fairness Criteria, Textbook